



2019년 소방직 [국어] 기출 문제 해설

01. 단어의 형성 방법이 다른 것은?

- ① 기와집 ② 지우개
③ 선생님 ④ 개살구

해설

- ① 기와(명사)+집(명사): 합성어
② 지우(동사의 어간)+개(명사화 접미사): 파생어
③ 선생(명사)+님(존칭 접미사): 파생어
④ 개(접두사)+살구(명사): 파생어

>>정답 ①

02. ㄱ, 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ㄱ. 우리 부모님께서는 내가 시험에 합격하기를 원하신다.
ㄴ. 우리는 이곳이 교통사고 발생의 빈도가 잦음을 전혀 몰랐다.

- ① ㄱ과 ㄴ 모두 명사절이 안겨 있다.
② ㄱ과 ㄴ 모두 안긴문장 속에 목적어가 있다.
③ ㄱ과 달리 ㄴ에는 안긴문장 속에 관형어가 있다.
④ ㄴ과 달리 ㄱ에는 안긴문장 속에 부사어가 있다.

해설

- ② ㄱ, ㄴ 모두 안긴문장 속에는 목적어가 없다. 안긴문장 전체가 목적어이다.
① ㄱ. 우리 부모님께서는 / 내가 시험에 합격하기를[목적어 명사절] / 원하신다.
ㄴ. 우리는 / 이곳이 교통사고 발생의 빈도가 잦음을[목적어 명사절] / 전혀 몰랐다.
③ ㄱ에는 안긴문장 속에 관형어가 없으나, ㄴ에는 ㄱ과는 달리 안긴문장 속에 '교통사고 발생의'라는 관형어가 있다.
④ ㄴ에는 안긴문장 속에 부사어가 없으나 ㄱ에는 ㄴ과는 달리 안긴문장 속에 '시험에'라는 부사어가 있다.

>>정답 ②

03. 밑줄 친 단어의 표준 발음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름에는 달이 밝다. [박따]
② 마루에 등불이 켜져 있다. [등뿔]
③ 음식이 아마당에 차려져 있다. [암마당]
④ 여기저기 다니며 막일이라도 하자. [마길]

해설

- ④ 막일[마길>망닐]: 막닐[‘ㄴ’첨가]→망닐[비음화]
① 밝다[박따]: 박다[자음군단순화]→박따[원소리되기현상]. 용언의 어간 말음 ‘ㄹ’은 어미의 초성 ‘ㄱ’ 앞에서만 대표음이 ‘ㄹ’이 되는 예외가 있고, 나머지의 자음은 원칙대로 대표음은 ‘ㄱ’이다.

- ② 등불[등뿔]: 등(명사)+불(명사)→[등뿔: 사잇소리 현상]
③ 아마당: 아마당[끝소리규칙]→아마당[비음화]

>>정답 ④

04. 주체 높임이 실현되지 않은 문장은?

- ① 할머니는 시장에 가셨다.
② 선생님을 모시러 교무실에 갔다.
③ 원래 어머니의 시력은 좋으셨다.
④ 고향에 계신 할아버지를 그리워했다.

해설

- ② 객체높임: 목적어의 대상인 ‘선생님’을 ‘모시다’라는 높임말을 통해 높이고 있다.
① 주체높임: 주어의 대상인 할머니를 서술어 ‘가셨다’에서 높임선어말어미 ‘-시’를 통해 높이고 있다. 이때 높임 주격조사 ‘-께서’와 호응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선어말어미 ‘-시’가 있는 경우에는 ‘-께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어법에 틀린 표현이 아니다.
③ 주체높임: 주체인 ‘어머니’를 ‘시력’을 통해 간접 높이고 있다. 서술어 ‘좋으셨다’에 높임선어말어미 ‘-시’가 사용되었다.
④ 주체높임: ‘고향에 계신’은 주어 ‘할아버지께서’가 생략된 관계관형절로 ‘계시다’는 주체인 할아버지를 높이는 말이다.

>>정답 ②

05. 밑줄 친 어휘가 옳지 않은 것은?

- ① 그는 나에게도 손을 벌렸다.
② 자동차가 가로수에 부딪쳤다.
③ 이따가 3시에 집 앞에서 만나자.
④ 과녁을 맞춘 화살이 하나도 없다.

해설

- ④ 맞춘>맞힌: ‘물체를 쏘거나 던져서 어떤 물체에 닿게 하다.’는 ‘맞히다’이다.
① 벌리다: ‘손을 벌리다’는 ‘손을 내밀다’와 같은 뜻으로 쓰는 관용구로 ‘무엇을 달라고 요구하거나 구걸하다.’의 의미이다.
② 부딪치다: ‘무엇과 무엇이 힘 있게 마주 닿거나 마주 대다.’의 ‘부딪다’를 강조하는 말이다. ‘부딪히다’는 ‘부딪다’의 피동사인 데 ‘자동차가 가로수에 부딪쳤다.’가 되면 ‘가로수’가 동작의 주체가 되므로 어법에 틀린 표현이다.
③ 이따가: 조금 지난 뒤에. ㄴ이따. 있다가: 어간 ‘있-’에 연결 어미 ‘-다가’가 붙어 활용된 형태이다.

>>정답 ④

06. <보기>와 같이 발음할 때 적용되는 음운 변동 규칙이 아닌 것은?

홀이불 → [혼이불]

- ① ㄴ 첨가 ② 두음법칙
③ 자음동화 ④ 음절의 끝소리 규칙

해설

② 홀이불: 홀니불[ㄴ첨가]→홀니불[음절의 끝소리규칙]→홀니불
[자음동화-비음화]

▶'두음법칙'은 한자음의 어두에 올 수 있는 자음을 제한하는 현상이다.

㉠ ㄴ>ㅇ: 녀, 뇨, 뉴, 니>여, 요, 유, 이

㉡ ㄹ>ㅇ: 락, 려, 레, 료, 류, 리>야, 여, 예, 요, 유, 이

㉢ ㄹ>ㄴ: 락, 래, 로, 뢰, 루, 르>나, 내, 노, 뇌, 누, 느

>>정답 ②

07. 띄어쓰기가 틀린 문장은?

- ① 내가ㅍ 믿을ㅍ 것은ㅍ 오직ㅍ 성실함뿐이다.
- ② 그녀는ㅍ 사실을ㅍ 아는ㅍ 대로ㅍ 설명했다.
- ③ 이ㅍ 약초는ㅍ 감기를ㅍ 낮게ㅍ 하는데ㅍ 쓰인다.
- ④ 사람들은ㅍ 그를ㅍ 자기밖에ㅍ 모른다고ㅍ 놀렸다.



해설

③ 하는데>하는ㅍ데: '데'는 조사 '에'가 생략된 형태이다. '데'는 '경우'의 뜻을 나타내는 의존명사이므로 관형어와 띄어 써야 한다.

▶-는데: 뒤 절에서 어떤 일을 설명하거나 묻거나 시키거나 제안하기 위하여 그 대상과 상관되는 상황을 미리 말할 때에 쓰는 연결 어미.

① 믿을ㅍ 것은: '것'은 '말하는 이의 확신, 결정, 결심 따위'를 나타내는 의존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성실함뿐이다: 체언 아래의 '뿐'은 '그것만이고 더는 없음' 또는 '오직 그렇게 하거나 그러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므로 붙여 쓴다.

▶뿐[의존명사]: 띄어 쓰는 경우

㉠ (어미 '-을' 뒤에 쓰여) 다만 어떠하거나 어찌할 따름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말.

㉡ ('-다 뿐이지' 구성으로 쓰여) 오직 그렇게 하거나 그러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

② 아는ㅍ대로: 관형어 아래의 '대로'는 '어떤 모양이나 상태와 같이'를 뜻하는 의존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대로[조사]: 붙여 쓰는 경우-(체언 뒤)

㉠ 앞에 오는 말에 근거하거나 달라짐이 없음을 나타내는 보조사.

㉡ 따로따로 구별됨을 나타내는 보조사.

④ 자기밖에: 체언 다음의 '밖에'는 '그것 말고는', '그것 이외에는', '기꺼이 받아들이는', '피할 수 없는'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므로 붙여 쓴다. 주로 뒤에 부정을 나타내는 말이 따른다.

▶'밖에'가 '밖(명사)+에(조사)'의 의미일 때는 앞 말과 띄어 쓴다. 다만 '창밖에'는 합성어이므로 붙여 쓴다.

>>정답 ③

일상적인 주변 인간들보다 고귀하고 비범한 인물을 등장시킨다. 그런데 이 주인공은 이른바 비극적 결함이라고 하는 운명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비극의 관객들은 이 주인공의 비극적 운명에 대한 공포와 비애를 체험하면서 카타르시스에 이르게 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같은 주장에 의해서 비극을 인간의 삶의 중심에 위치시킨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비극의 결말이 불행하게 끝나는 것이 좋다고 보았으나, 불행한 결말이 비극에 필수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사실 그리스 비극 가운데 결말이 좋게 끝나는 작품도 적지 않다.

- ① 비극적 결함에 의해 파멸되어 가는 인간의 모습을 담은 것이 근대 비극이다.
- ②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리스 비극이 모두 불행한 결말로 끝이 나야 하는 것으로 보았다.
- ③ 그리스 시대 비극의 특징은 성격이나 상황의 문제로 인해 패배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 준다.
- ④ 관객들은 비극을 통해 비범한 인간들의 운명에 대한 공포와 비애를 경험하면서 카타르시스에 이르게 된다.



해설

④ 근거(2단락): "비극의 관객들은 이 주인공의 비극적 운명에 대한 공포와 비애를 체험하면서 카타르시스에 이르게 된다."로 보아 ④의 '관객들은 비극을 통해 비범한 인간들의 운명에 대한 공포와 비애를 경험하면서 카타르시스에 이르게 된다.'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① 근거(1단락): "그리스 시대의 비극은 비극적 결함이라고 하는 운명의 요건으로 인하여 파멸하는 인간의 모습을 그려 냈다."와 ①의 '비극적 결함에 의해 파멸되어 가는 인간의 모습을 담은 것이 근대 비극이다.'는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

② 근거(2단락): "아리스토텔레스는 비극의 결말이 불행하게 끝나는 것이 좋다고 보았으나, 불행한 결말이 비극에 필수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와 ②의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리스 비극이 모두 불행한 결말로 끝이 나야 하는 것으로 보았다.'는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

③ 근거(1단락): "근대의 비극은 성격의 문제나 상황의 문제로 인하여 패배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 준다."와 ③의 '그리스 시대 비극의 특징은 성격이나 상황의 문제로 인해 패배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 준다.'는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

>>정답 ④

08. 다음 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비극은 극 양식을 대표한다. 비극은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발전해 온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비극은 고양된 주제를 묘사하며, 불행한 결말을 맺게 된다. 그러나 비극의 개념은 시대와 역사에 따라 변하고 있다. 그리스 시대의 비극은 비극적 결함이라고 하는 운명의 요건으로 인하여 파멸하는 인간의 모습을 그려 냈다. 근대의 비극은 성격의 문제나 상황의 문제로 인하여 패배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 준다. 비극은 그 본질적 속성이 역사적이라기보다 철학적이다. 비극의 주인공으로는

09. <보기>를 참고하여 ㉠~㉣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집의 옷밥을 얻고 들먹는 저 고공(雇工)아, 우리 집 기별을 아난다 모른다. 비 오는 날 일 업술 짓속 쏘면서 니르리라. ㉠ 처음의 한어버이 사름스리 흐려 흘진, 인심(仁心)을 만히 쓰니 사름이 절로 모다, ㉡ 풀췌고 터을 닷가 큰 집을 지어 내고, 서리 보십 장기 쇼로 전답(田畓)을 기경(起耕)하니, ㉢ 오려논 터밭치 여드레 그리로다. 자손(子孫)에 전계(傳繼)하야 대대(代代)로 나려오니, 논밭도 죠커니와 고공(雇工)도 근검(勤儉)터라. 저희마다 여름지어 가을여러 사던 것슬,

요스이 고공(雇工)들은 험이 어이 아조 업서, 밥사발
큰나 차그나 동웃시 죠코 즈나, ㉠ ㅁㅅ을 ㄷ호는 ㄷ
호슈을 식오는 ㄷ, 무슴 일 감드려 흘깃할깃 헉스나.

- 허전, 「고공가(雇工歌)」

- ① ㉠: 태조 이성계가 조선 왕조를 창업한 사실과 관련지을 수 있다.
② ㉡: 나라의 기초를 닦은 조선 왕조의 모습과 관련지을 수 있다.
③ ㉢: 조선의 땅이 외침으로 인해 피폐해진 현실과 관련지을 수 있다.
④ ㉣: 신하들이 서로 다투고 시기하는 상황과 관련지을 수 있다.

해설

- ③ ㉢ 오려논 터밧치 여드레 ㄱ리로다: 울버논과 텃밭이 여드레 동안 갈 만한 큰 땅(조선 팔도)이 되었다.
→조선의 땅이 기름지고 넓어짐을 비유한 말이지 '외침으로 인해 피폐해진 현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① ㉠ 처음의 한어버이 사름스리 흐려 홀 직: 한 어버이(이태조에 비유)가 살림을 시작하였을 때
→태조 이성계가 조선 왕조를 창업한 사실과 관련지을 수 있다.
② ㉡ 플 췌고 터을 닷가 큰 집을 지어 내고: 풀을 베고 터를 닦아 큰 집(조선 건국)을 지어 내고
→나라의 기초를 닦은 조선 왕조의 모습과 관련지을 수 있다.
④ ㉣ ㅁㅅ을 ㄷ호는 ㄷ 호슈을 식오는 ㄷ: 마음을 다투는 ㄷ 우두머리를 시기하는 ㄷ
→신하들이 서로 다투고 시기하는 상황과 관련지을 수 있다.

▶제시문 현대어 풀이

집의 옷과 밥을 제쳐 놓고 이집 저집 빌어먹는 저 고공아(조정의 신하),
우리 집 소식을 아느냐 모르느냐?
비 오는 날 일 없을 때 새끼 꼬면서 말하리라.
조부모님(조선을 건국하신 이성계)께서 살림살이하려 하실 때,
어진 마음을 많이 쓰시니 사람들이 저절로 모여서
풀을 베고 터를 닦아 큰 집을 지어 내고
췌레, 보습, 쟁기, 소로 전답을 일으키니,
울버논 텃밭이 여드레 동안 갈 만한 넓이로구나.
자손에게 이어 전하여 대대로 내려오니,
논밭도 좋거니와 고공들도 부지런하고 검소하였더라.
저희마다 농사를 지어 부유하고 풍요롭게 살았는데,
요즈음 고공들은 어찌하여 사리분별도 전혀 없어,
밥그릇이 크나 작으나, 겨울웃(동웃: 남자가 입는 저고리)이 좋거나 나쁘거나, 마음을 다투는 ㄷ 호수(호의 우두머리)를 시기하는 ㄷ,
무슨 일을 꺼려서 반목만을 일삼느냐?

▶허전, <고공가(雇工歌)>

- 해제:** 이 작품은 총 52구의 가사로 농부의 어려움을 국사(國事)에 비유하여, 농가의 한 어른이 바르지 못한 머슴들의 행동을 나무라는 표현 형식을 취해, 정사(政事)에 게을리 하는 조정 백관의 탐욕과 무능함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교훈적인 노래이다.
- 갈래:** 조선 후기 가사, 경세가(警世歌), 풍자가
- 성격:** 풍자적, 비유적, 교훈적, 계도적, 경세적(警世的)
- 표현**
 - 3.4조 4음보의 율격을 사용하여 음악성을 확보하고 있다.
 - 나라의 일을 집안의 농사일로, 화자를 주인으로, 탐욕을 추구하는 관리들을 머슴(고공)으로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다.

5. 주제

- ① 분별과 계획이 없는 관리들을 풍자함.
- ② 나태하고 이기적인 관리들의 행태 비판

6. 본문 해설

(1) 집안의 내력

제 집 옷과 밥을 두고 빌어먹는 저 머슴아. 우리 집 소식(내력)을 아느냐 모르느냐? 비 오는 날 일 없을 때 새끼 꼬면서 말하리라. 처음에 조부모님께서 살림살이를 시작할 때에, 어진 마음을 베푸시니 사람들이 저절로 모여, 풀을 베고 터를 닦아 큰 집을 지어 내고, 췌레, 보습, 쟁기, 소로 논밭을 기경하니, 울버논과 텃밭이 여드레 동안 갈 만한 큰 땅이 되었다. 자손에게 물려주어 대대로 내려오니, 논밭도 좋거니와 머슴들도 근검하였다.

(2) 머슴들의 반목으로 인한 폐해

저희들이 각각 농사지어 부유하게 살던 것을, 요새 머슴들은 생각이 아주 없어서, 밥그릇이 크거나 작거나 입은 옷이 좋거나 나쁘거나, 마음을 다투는 ㄷ 우두머리를 시기하는 ㄷ, 무슨 일에 반목을 일삼느냐?

>>정답 ③

[10~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도르래는 둥근 바퀴에 튼튼한 줄을 미끄러지지 않도록 감아 무거운 물체를 들어 올리는 데 사용하는 도구이다. 가장 기본이 되는 도르래는 고정 도르래와 움직 도르래이다. 그렇다면 두 도르래의 차이는 어떤 것이 있을까?

우선 고정 도르래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고정 도르래는 힘의 방향만 바꾸어 주는 도르래로 줄을 감은 바퀴의 중심축이 고정되어 있다. 힘의 이득을 볼 수는 없지만, 힘의 작용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고정 도르래를 사용할 때는 줄의 한쪽에 물체를 걸고 다른 쪽 줄을 잡아 당겨 물체를 원하는 높이까지 움직인다. 이때 물체를 들어 올리는 힘은 줄 하나가 지탱하고 있다. 따라서 직접 들어 올리는 것과 비교해 힘의 이득은 없으며 단지 고정 도르래 때문에 줄을 당기는 힘의 방향만 바뀐다. 하지만 물체를 높은 곳으로 직접 들어 올리는 것보다는 줄을 아래로 잡아당김으로써 물체를 올리는 방법이 훨씬 편하다. 또한 물체를 1미터 들어 올리기 위해 잡아당기는 줄의 길이도 1미터면 된다.

한편 움직 도르래는 힘의 이득을 보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이다. 움직 도르래를 사용할 때는 도르래에 줄을 감고 물체를 들어 올린다. 움직 도르래는 도르래 축에 직접 물체를 매달기 때문에 줄을 당기면 물체와 함께 도르래도 움직인다. 이때 물체를 지탱하는 줄은 두 가닥이 된다. 물체의 무게는 각 줄에 분산되어 두 사람이 각각의 줄을 잡고 동시에 들어 올리는 효과가 난다. 따라서 움직 도르래 한 개를 사용하면 물체 무게의 2분의 1의 힘으로 물체를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물체를 1미터 들어 올리기 위해 당겨야 하는 줄의 길이는 물체가 올라가는 높이의 두 배인 2미터이다. 왜냐하면 물체가 1미터 올라갈 때 물체를 지탱하는 두 줄도 동시

에 1미터씩 움직여야 하는데, 줄을 당기는 쪽으로 줄이 감기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움직 도르래를 이용하여 물체를 들어 올리면 줄의 길이는 물체가 움직여야 하는 높이의 두 배가 필요하게 된다.

10. 뒷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고정 도르래는 도르래 축에 물체를 직접 매달아 사용한다.
- ② 움직 도르래와 고정 도르래를 함께 사용해야 물체의 무게가 분산된다.
- ③ 움직 도르래로 물체를 들어 올릴 수 있는 높이는 줄의 길이에 영향을 받는다.
- ④ 고정 도르래는 줄을 당기는 힘의 방향과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이 일치한다.



해설

- ③ 근거(3단락): “움직 도르래를 이용하여 물체를 들어 올리면 줄의 길이는 물체가 움직여야 하는 높이의 두 배가 필요하게 된다.”와 ③의 ‘움직 도르래로 물체를 들어 올릴 수 있는 높이는 줄의 길이에 영향을 받는다.’는 내용이 일치함을 알 수 있다.
- ① 근거(2단락): “고정 도르래를 사용할 때는 줄의 한쪽에 물체를 걸고 다른 쪽 줄을 잡아 당겨 물체를 원하는 높이까지 움직인다.”와 ②의 ‘고정 도르래는 도르래 축에 물체를 직접 매달아 사용한다.’는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
- ② 근거: 1단락에서 “그렇다면 두 도르래의 차이는 어떤 것이 있을까?” 하고 물음을 제시한 다음 2단락과 3단락은 각각 고정 도르래와 움직 도르래의 ‘원리와 특징’의 차이점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②의 ‘움직 도르래와 고정 도르래를 함께 사용해야 물체의 무게가 분산된다.’는 내용은 제시문에 나와 있지 않다.
- ④ 근거(2단락): “고정 도르래는 ~ 직접 들어 올리는 것과 비교해 힘의 이득은 없으며 단지 고정 도르래 때문에 줄을 당기는 힘의 방향만 바뀐다.”와 ④의 ‘고정 도르래는 줄을 당기는 힘의 방향과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이 일치한다.’는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

>>정답 ③

11. 뒷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구체적 사례를 통해 개념 이해를 돕고 있다.
- ② 대상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 ③ 대상의 인과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고 있다.
- ④ 특정 기술이 발달한 과정을 순서대로 제시하고 있다.



해설

- ② 1단락의 “그렇다면 두 도르래의 차이는 어떤 것이 있을까?” 하는 물음에 대해 2단락과 3단락은 각각 고정 도르래와 움직 도르래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원리와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 ① 고정 도르래와 움직 도르래의 원리와 특징의 차이점을 설명하여 개념 이해를 돕고 있을 뿐 구체적 사례(예시)는 사용되지 않았다.
- ③ 고정 도르래와 움직 도르래의 어디에도 인과관계에 초점을 맞춘 설명은 없다.
- ④ 특정 기술이 발달한 과정을 순서대로 제시하고 있는 설명은 제시되지 않았다.

>>정답 ②

12.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못난 놈들은 서로 얼굴만 봐도 흥겹다
이발소 앞에 서서 참외를 깎고
목로에 앉아 막걸리를 들이켜면
모두들 한결같이 친구 같은 얼굴들
- ㉡ 호남의 가뭄 애기 조합 빗 애기
약장수 기타 소리에 발장단을 치다 보면
왜 이렇게 자꾸만 서울이 그리워지나
어디를 들어가 쉴다라도 벌일까
주머니를 털어 색칫집에라도 갈까
- ㉢ 학교 마당에들 모여 소주에 오징어를 찢다
어느새 긴 여름 해도 저물어
고무신 한 켤레 또는 조기 한 마리 들고
- ㉣ 달이 환한 마창길을 절뚝이는 파장
- 신경림, 「파장」

- ① ㉠: 농민들이 서로에게 느끼는 유대감을 보여 준다.
- ② ㉡: 농민들이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나타난다.
- ③ ㉢: 어려움을 극복한 농민들의 흥겨움이 드러난다.
- ④ ㉣: 농촌의 힘겨운 현실을 시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해설

- ③ ㉢ 학교 마당에들 모여 소주에 오징어를 찢다: 막막한 농촌의 현실에 가슴 답답해하며 학교 마당에 모여 소주를 마시며 울분을 토하는 모습일 뿐, 어려움을 극복한 농민들의 흥겨움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 ① ㉠ 못난 놈들은 서로 얼굴만 봐도 흥겹다: ‘못난 놈들’은 서글픔이 깔린 친근감과 동료애를 느끼게 하는 표현이고, ‘서로 얼굴만 봐도 흥겹다’는 시적 화자의 농민에 대한 진한 애정과 비극적 인식으로 ‘농민들이 서로에게 느끼는 유대감’을 보여 주고 있다.
- ② ㉡ 호남의 가뭄 애기 조합 빗 애기: 농민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제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④ ㉣ 달이 환한 마창길을 절뚝이는 파장: 현실의 울적한 이야기를 들으면 그들은 자포자기하고 싶기도 하지만 파장 무렵의 장에서 이것 저것 집안에서 필요한 것들을 사서 달이 환한 마창길로 접어들어서 무거운 발걸음 다시 집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농촌 현실의 불구성을 시적으로 형상화한 부분이다. ‘절뚝이는 파장’은 실제로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걸음걸이를 나타내면서, 삶의 무게와 어려움에 절뚝이는 모습을 동시에 담은 중의적 표현으로 볼 수도 있다.

▶신경림, 「파장」

1. **해제:** 어느 시골 장터를 배경으로 하여 가난하고 소외된 농촌의 모습을 진솔한 목소리와 서정적인 이미지로 잘 형상화시킨 작품이다
2. **성격:** 향토적, 비판적, 서정적, 서사적
3. **특징**
 - ① 시간의 경과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일상어와 비속어의 적절한 구사로 농민들의 삶을 진솔하게 나타내고 있다.
 - ③ 4음보 중심의 경쾌하고 투박한 리듬을 제시하여 운율감을 살리고 있다.
 - ④ 적절한 서사적 제재의 선택하여 소외된 농촌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4. 제재: 장터의 서민들의 모습

5. 주제: 황폐화되어 가는 농촌의 현실을 살아가는 농민들의 애환과 비통함

>>정답 ③

서 자세히 살펴보니 않고 대강 보고 지나감을 이룸.

④ 호가호위: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려 호기를 부린다.'는 뜻으로, 남의 세력을 빌려 위세를 부림

>>정답 ②

[13~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십년(十年)을 경영(經營)하여 초려삼간(草廬三間)
지여 내니
나 혼 간 들 혼 간에 청풍(淸風) 혼 간 맛져 두고
강산(江山)은 들일 되 업스니 둘러 두고 보리라
-송순의 시조

(나) 동지(冬至)스들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버혀 내어
춘풍(春風) 니불 아리 서리서리 너헛다가
어론 님 오신 날 밤이여든 구뵈구뵈 퍼리라
- 황진이 시조

13.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한자 어휘를 활용해 유교적 이념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선경후정(先景後情)으로 시적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 ③ 의지적 어조의 종결 어미로 화자의 의도를 강화하고 있다.
- ④ 물아일체(物我一體)의 삶을 살고자 하는 화자의 정서가 나타나 있다.



해설

- ③ (가)의 '~보리라'와 (나)의 '~퍼리라'는 의지적 어조의 종결어미를 사용하여 (가)는 '자연 속에서 자연과 함께 살고 싶다.'는 화자의 소박한 바람을, (나)는 '잘라낸 시간을 고운임이 오시는 시간에 붙여 무궁하게 놀이겠다.'는 의도를 강화하고 있다.
- ① (가), (나)의 한자 어휘의 사용은 유교적 이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 ② (가), (나) 모두 '선경후정(先景後情)'의 시상 전개와는 관련이 없다.
- ④ 물아일체(物我一體)의 삶을 살고자 하는 화자의 정서가 나타난 작품은 (가)일 뿐, (나)와는 관련이 없다.

>>정답 ③

14. (가)에 드러나는 주제 의식과 관련된 사자성어로 적절한 것은?

- ① 敎學相長 ② 安貧樂道
- ③ 走馬看山 ④ 狐假虎威



해설

- (가): 초장에서 십 년을 경영하여 초가삼간을 지었다는 표현을 통해 지은이가 욕심이 없는 삶을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안빈낙도: 구차하고 궁색하면서도 그것에 구속되지 않고 평안하게 즐기는 마음으로 살아감
 - ① 교학상장: 가르침과 배움이 서로 진보시켜 준다는 뜻으로,
 - ㉠ 사람에게 가르쳐 주거나 스승에게 배우거나 모두 자신의 학업을 증진시킴.
 - ㉡ 가르치는 일과 배우는 일이 서로 자신의 공부를 진보시킴.
 - ③ 주마간산: '말을 타고 달리면서 산을 바라본다.'는 뜻으로, 바빠

15. 다음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심 매러 갈 적에는 갈뽕을 따 가지고
기심 매고 올 적에는 올뽕을 따 가지고
삼간방에 누어 놓고 청실홍실 뽑아내서
강릉 가서 날아다가 서울 가서 매어다가
하늘에다 베를 놓고 구름 속에 이매 걸어
함경나무 바다집에 오리나무 북계다가
짜궁짜궁 짜아 내어 가지잎과 물겨워라
배꽃같이 바래워서 참외같이 올 짓고
외씨 같은 보선 지어 오빠님께 드리고
겉옷 짓고 솜옷 지어 우리 부모 드리겠네
- 작자 미상, 「베를 노래」

- ① 노동 현실에 대한 한과 비판이 드러나 있다.
- ② 대구법과 직유법 등의 표현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 ③ 4·4조의 운율과 언어 유희로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④ 화자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과장되게 표현한 부분이 나타나 있다.



해설

- ① '베를 노래'는 베 짜기의 고달픔을 덜어 주면서도 가족들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고 있는 강원도 통천 지방의 구전 민요이자 노동요이다. '노동 현실에 대한 한과 비판'과는 관련이 없다.
- ② 대구법: 기심 매러 갈 적에는 갈뽕을 따 가지고/기심 매고 올 적에는 올뽕을 따 가지고/
직유법: 배꽃같이 바래워서 참외같이 올 짓고/외씨 같은 보선 지어 오빠님께 드리고
- ③ 4.4조 4음보의 민요적 운율과 '갈뽕', '올뽕'의 언어유희로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④ '강릉 가서 날아다가 서울 가서 매어다가/하늘에다 베를 놓고 구름 속에 이매 걸어'의 과장된 표현으로 화자의 상상력을 드러내고 있다.

▶베를 노래(작자 미상)의 핵심 정리

- **해제:** 이 노래는 강원도 통천 지방에 전해지는 민요로서, 부녀자들이 베 짜기의 고달픔과 지루함을 덜기 위해 부르던 4·4조, 4음보 연속체의 노동요이다. 뽕을 따다 누에를 치는 것으로부터 누에고치에서 실을 뽑아 비단을 짜서 가족들의 옷을 지어 주는 데까지의 과정을 시간 순서에 따라 서사적으로 노래하고 있다. 유교적 성향을 지닌 화자의 우애(友愛)와 효친(孝親)의 정서가 두드러지며 순우리말을 이용하여 베의 여러 부분의 생김새와 베를 놓는 과정, 그리고 베를 짜는 모습을 실감 나게 표현하고 있는데 세련되고 우아한 표현과 재미 있는 언어유희가 돋보인다. 특히 '하늘에다 베를 놓고 구름 속에 이매 걸어'에는 자신이 베를 짜는 선녀라고 상상하여 힘들고 지루함을 덜어 보려는 낭만적인 환상이 나타나는데, 이를 통하여 힘들고 억눌린 생활 속에서도 낭만과 여유를 잃지 않았던 옛 여인들의 낙천적인 삶의 태도를 파악할 수 있다.
- **갈래:** 민요, 노동요, 부모

- **성격:** 여성적, 낙천적, 유교적, 낭만적
- **운율:** 4·4조, 4음보
- **주제**

- ① 베를 짜는 과정에서 느끼는 낭만적 여유와 가족애
- ② 베 짜는 여인의 흥과 멋

• **특징**

- ① 4·4조의 운율, 언어유희, 반복법 사용으로 리듬감을 형성함.
- ② 뽕일을 따서 옷을 짓기까지의 과정을 시간적 순서에 의한 추보식으로 구성함.
- ③ 세련되고 우아한 어투를 구사함.
- ④ 힘든 노동의 상황에도 자신을 선녀로 표현하는 낭만적 여유를 지니고, 가족애와 근면한 삶의 태도가 드러남.

낭만적 태도	힘든 노동 속에서도 낭만적 여유를 잃지 않고 자신을 직녀(선녀)에 비유하는 상상력을 발휘함.
유교적 태도	효(孝)와 우애(友愛)를 중시하는 화자의 가족애(家族愛)가 표출됨

>>정답 ①

16. 다음에서 알 수 있는 ‘나’의 이름은?

안녕하세요?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 이름은 아랫입술과 윗입술이 맞닿아서 나는 소리가 한 개 들어 있습니다. 파열음이나 파찰음은 없고 비음이 포함되어 있어서 발음하기 부드럽습니다. 제 이름을 발음할 때 혀의 위치는 가장 높았다가 낮게 내려가면서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기도 합니다. 제 이름은 무엇일까요

- ① 민애
- ② 진주
- ③ 하은
- ④ 정빈

해설

- (1) 아랫입술과 윗입술이 맞닿아서 나는 소리: 입술소리(ㅂ, ㅅ, ㅍ, ㅌ)
- (2) 파열음이나 파찰음은 없다:
 - ㉠ 파열음(ㄱ, ㅋ, ㆁ/ㄷ, ㅌ, ㅍ/ㅂ, ㅅ, ㅍ)
 - ㉡ 파찰음(ㅈ, ㅊ, ㅊ)
- (3) 혀의 위치는 가장 높았다가 낮게 내려간다.:
 - ㉠ 고모음(ㅣ, ㅑ, ㅓ, ㅕ)
 - ㉡ 중모음(ㅔ, ㅖ, ㅗ, ㅛ)
 - ㉢ 저모음(ㅘ, ㅚ)
- ① 민애: ‘ㅛ’는 입술소리이면서도 파열음이나 파찰음이 아니다. 또한 모음 ‘ㅣ’는 고모음이고 ‘ㅛ’는 저모음이므로 발음할 때 ‘혀의 위치는 가장 높았다가 낮게 내려간다.’는 조건에 부합된다.
- ② 진주: ‘ㅈ’의 파찰음이 있으므로 제외.
- ③ 하은: 파열음이나 파찰음은 없으나, 입술소리가 없으므로 제외.
- ④ 정빈: ‘ㅂ’의 입술소리는 있으나 파열음이고, ‘ㅈ’은 파찰음으로 제외

>>정답 ①

[17~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최근 들어 ‘낙시질’이라는 표현을 사람에게 쓰고는 한다. 물론 글자 그대로의 의미는 아니다. 가령

인터넷상에서 호기심이나 관심을 발동시키는 기사 제목을 보고 그 기사를 읽어 보았지만, 그럴 만한 내용이 없었을 때 이런 표현을 사용한다. 즉 ‘낙시질’이라는 말은 기사 제목이 던지는 미끼에 현혹되어 그것을 몰랐지만 소득 없이 기만만 당하였다는 의미이다. ‘낙시질’은 특히 인터넷상에서 벌어지는 특징적인 현상이다.

(나) 캐나다의 매체 이론가인 마셜 맥루언은 “매체는 메시지이다.”라고 하였다. 매체란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을 말하는데, 그것은 단순한 수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 자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메시지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그에 따르면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의사를 전달하는 언어는 물론이거니와 노동의 도구들조차 인간과 노동대상 사이를 매개하는 물건이므로 매체에 속한다. 따라서 새로운 매체가 개발되면 그것을 통해 인간의 활동 영역이 훨씬 더 확대되므로 ‘매체는 인간의 확장’이라고 했다.

(다) 매체가 가지는 능동적인 힘을 인정한다면, 매체가 단순히 메시지를 담는 그릇에 불과하다거나 중립적일 수도 있다는 견해는 환상에 지나지 않게 된다. 매체가 중립적이지 않다면 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들도 자연 중립적일 수가 없다. 앞서 인터넷상에서 벌어지는 신문 기사 제목의 ‘낙시질’을 문제 삼았지만 인터넷 이전의 언론 매체들이라고 해서 모두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해왔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이다.

(라) 상업적이고 퇴폐적인 방송이나 기사, 자칫하면 국수주의로 흐를 수도 있는 스포츠 중계 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윤 동기에 지배당하는 매체 회사들에게 일차적인 책임을 물어야 하겠지만 손바닥도 혼자서는 소리를 낼 수 없는 법, 상업화로 균형 감각을 상실한 방송이나 기사를 흥미롭게 보는 수용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 남의 사생활을 몰래 들여다보고 싶어 하는 욕망, 불행한 사건·사고들을 수수방관하면서도 그 전말에 대해서는 시시콜콜히 알고 싶어 하는 호기심, 집단의 열광 속에 파묻혀 자신이 잃어버린 무엇인가를 보상받고 싶어 하는 수동적 삶의 태도 등은 황색 저널리즘과 ‘낙시질’이 성행하는 터전이 된다. 바로 ‘우리’가 그들의 숨은 동조자일 수 있다.

17. 밑줄로 알 수 있는 내용은?

- ① ‘낙시질’은 남의 사생활을 몰래 들여다보는 행위로, 인터넷상에서 벌어지는 특징적인 현상이다.
- ② 이윤 동기에 지배당하는 매체 회사들을 바로 상업적 방송의 ‘숨은 동조자’라 할 수 있다.
- ③ 신문 기사와 같은 매체 자료는 생산자의 주관적 동기에 영향을 받는다.

- ④ 매체 회사들이 생산한 매체 자료는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다.



해설

- ③ 근거(라): “이윤 동기에 지배당하는 매체회사들”이나 “상업화로 균형 감각을 상실한 방송이나 기사”를 근거로 ③의 ‘신문 기사와 같은 매체 자료는 생산자의 주관적 동기에 영향을 받는다.’는 설명은 옳게 되어 있다.
- ① (가)에서 “‘낙이다’라는 말은 기사 제목이 던지는 미끼에 현혹되어 그것을 몰었지만 소득 없이 기만만 당하였다는 의미이다. ‘낙시질’은 특히 인터넷상에서 벌어지는 특징적인 현상이다.”라고 제시하였지만, (라)에서 “낙의 사생활을 몰래 들여다보고 싶어 하는 욕망, 불행한 사건 · 사고들을 수수방관하면서도 그 전말에 대해서는 시시콜콜히 알고 싶어 하는 호기심, 집단의 열광 속에 파묻혀 자신이 잃어버린 무엇인가를 보상받고 싶어 하는 수동적 삶의 태도 등은 황색 저널리즘과 ‘낙시질’이 성행하는 터전이 된다.”에서 보듯이 ‘낙시질’이 성행하는 이유 중에 ‘낙의 사생활을 몰래 들여다보고 싶어 하는 욕망’이 있는 것이지 ①처럼 ‘낙시질’의 개념 자체가 ‘낙의 사생활을 몰래 들여다보는 행위’인 것은 아니다.
- ② (라)에서 “이윤 동기에 지배당하는 매체회사들에게 일차적인 책임을 물어야 하겠지만~”이라 했지만 끝 부분 “바로 ‘우리’가 그들의 숨은 동조자일 수 있다.”라고 제시한 것으로 보아 ②처럼 ‘숨은 동조자’는 수용자인 ‘우리’이지 이윤 동기에 지배당해 상업적 방송을 하는 매체 회사들 자체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 ④ (라)에서 “이윤 동기에 지배당하는 매체회사들”이라 했고, (다)에서 “매체가 중립적이지 않다면 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도 자연 중립적일 수가 없다.”로 제시한 것으로 보아 ④의 “매체 회사들이 생산한 매체 자료는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다.”는 뒷글로 알 수 있는 추론이 아니다.

>>정답 ③

18. 뒷글에 드러난 설명 방식이 아닌 것은?

- ① 비교 ② 예시
③ 정의 ④ 인용



해설

- ① ‘비교’는 동일 범주의 대상 사이의 유사점을 내세워 설명하는 방식인데 화제인 ‘낙이다’나 비판의 대상인 ‘매체 회사들’과 유사점을 가진 대상은 없으므로 ‘비교’의 방법은 사용되지 않았다.
- ② 예시: (라)에서 황색 저널리즘과 ‘낙시질’이 성행하는 이유를 수용자의 태도와 관련지어 구체적으로 예(낙의 사생활을 몰래 들여다보고 싶어 하는 욕망, 불행한 사건 · 사고들을 수수방관하면서도 그 전말에 대해서는 시시콜콜히 알고 싶어 하는 호기심, 집단의 열광 속에 파묻혀 자신이 잃어버린 무엇인가를 보상받고 싶어 하는 수동적 삶의 태도 등)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 ③ 정의: (가)에서 ‘낙이다’의 개념을 “말은 기사 제목이 던지는 미끼에 현혹되어 그것을 몰었지만 소득 없이 기만만 당하였다는 의미이다.”라는 ‘정의’의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④ 인용: (나)에서 [캐나다의 매체 이론가인 마셜 맥루언은 “매체는 메시지이다.”]라고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정답 ①

[19~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선물을 주고받는 문화를 낳는 터전은 유목적이고 도시적인 환경일 터인데 내가 태어나 자란 곳은 정착민, 농경의 세계였다. 오늘이 내일 같고 내일이 어제 같아서 좀처럼 변하지 않는 풍경, 관계, 면면에서는 선물을 주고받을 일이 없었다. 식구끼리 선물을 주고받는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었다.

그렇지만 나는 선물을 받은 적이 있다. 그것도 아버지에게서. “이건 네(게 주는) 선물”이라고 아버지가 말했기 때문에 그건 선물이 되었다. 개였다. 정확하게는 ㉠ 강아지였다.

아버지는 어느 날 점퍼 속에 강아지 한 마리를 넣어왔다. 난 지 며칠이나 지났을까. 호떡을 싸는 종이 봉지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작았다. 어린 시절 내게 개는 닭처럼 잡아먹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닭 이상으로 좋아할 것도 없는 동물이었다. 중학교 2학년 때 서울이라는 유목적이고 도시적인 환경으로 전학 온 내게 아버지가 선물이라며 준 강아지는 내가 그때까지 보아온 가축이 아니라 처치 곤란하고 ‘낮선 것’이었다. 그 이전에는 물론 그 뒤로 아버지는 한 번도 내게 선물을 준 적이 없다.

겨울밤이었고 ㉡ 아버지가 일평생 처음으로 선물이라며 종이 봉지 속에 든 강아지를 내게 줄 때 술 냄새가 났다. 나는 종이 봉지 속 강아지의 목덜미를 붙들어서 현관 바깥 종이 상자 속에 내려놓았다. 가축은 집 안에 들일 수 없는 게 원칙이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강아지를 선물로 생각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많은 식구 중 내게 주는 선물이라고 했지만 아버지가 그날 밤 집에 들어오면서 부딪힌 첫 번째 식구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다면 그의 선물이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여겼다. 하지만 기분은 묘했다. 어쨌든 아버지에게서 처음 받은 선물이었으니까.

한밤중에 나는 선물이 우는 소리에 잠을 깼다. 내 옆, 옆과 그 옆, 그 옆에 자고 있는 그 누구도 잠을 깨거나 일어나지 않았다. 방을 나가서 바깥에 있는 화장실로 가기 위해 문을 열었을 때 선물이 우는 소리가 더욱 크게 들렸다. 사실 오줌이 마려웠던 것도 아니었다. 선물이 어떤 상태인지 알고 싶었던 것이었다. 그건 다리를 덜덜 떨며 쭈뼛거렸다. 나는 배가 고파서 우는 걸로 알았다. 부엌에 뭐가 있는지 몰라서 뭘 가져다줄 수 없었다. 나는 그날 저녁 내 뒤통으로 받고 아껴 먹다 남겨 둔 백설기를 가지고 나왔다. 접시에 물을 담아 ㉢ 백설기와 함께 큰맘 먹고 내밀었다. 선물은 내 선물에 관심이 전혀 없었다. 그저 쭈뼛거리며 다리를 떨며 울 뿐이었다. 나는 무시당한 데 대해 화가 났다. 선물을 철회했다. 백설기를 집어 들면서도 물은 그냥 두었다. 울다 보면 목이 멜지도 모르고 물은 그럴 때 먹으면 되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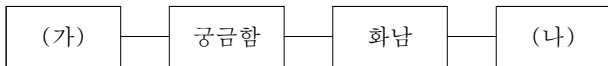
방으로 돌아와 누웠을 때에도 선물의 울음소리는 게

속해서 들려왔다. 천둥 치듯 아버지는 코를 골았지만 선물의 가느다란, 여린 꺾꺾거림은 정확하게 나의 청각을 자극하고 잠 못 들게 했다. 결국 다시 밖으로 나왔다. 철회했던 선물을 다시 주고 그 옆에 쭈그리고 앉았다. 선물의 머리를 쓰다듬기 시작하자 울음이 그쳤다. 선물은 너무 어려서 백설기를 먹을 수 없었다. 물을 마시지도 않았다. 다만 관심과 연민에 반응할 수 있을 뿐이었다. 관심과 ㉔ 연민의 공급이 중단되면 즉시 울음이 시작됐다. 결국 나는 내복 바람으로 날이 밝아 오는 것을 보았다.

아버지는 강아지를 선물했다. 나는 강아지에게 백설기를 선물했다. 밤이 아침을 선물하듯 강아지는 내게 난생처음 경험하는 연민의 감정을 선물했다.

- 성석제, 「선물」

19. '강아지'에 대한 '나'의 감정 변화로 (가), (나)에 가장 알맞은 것은?



- | | |
|-------|-----|
| (가) | (나) |
| ① 즐거움 | 불쌍함 |
| ② 난처함 | 사랑함 |
| ③ 즐거움 | 사랑함 |
| ④ 난처함 | 불쌍함 |

해설

④ (가)는 “중학교 2학년 때 서울이라는 유목적이고 도시적인 환경으로 전학 온 내게 아버지가 선물이라며 준 강아지는 내가 그 때까지 보아 온 가족이 아니라 처치 곤란하고 ‘낯선 것’이었다.”로 보아 내가 처음 강아지를 받았을 때의 ‘난처함(낯선 것)’이었고, (나)는 “다만 관심과 연민에 반응할 수 있을 뿐이었다. 관심과 연민의 공급이 중단되면 즉시 울음이 시작됐다.”로 보아 ‘불쌍함(연민)’의 감정이다.

>>정답 ④

20. 밑줄의 내용에 비취 볼 때 ㉠~㉣ 중 내포하는 의미가 나머지와 다른 것은?

- | | |
|-----|-----|
| ① ㉠ | ② ㉡ |
| ③ ㉢ | ④ ㉣ |

해설

② ㉡ ‘아버지’는 선물을 전달할 대상일 뿐이고, 나머지는 나와 관련된 대상(선물)들이다.

- ㉠ 강아지: 내가 아버지에게 받은 선물
 ㉢ 백설기: 내가 강아지에게 준 선물
 ㉣ 연민: 강아지가 나에게 준 선물

▶성석제, ‘선물’

1. **해제:** 아버지로부터 선물 받은 강아지에게 난생처음 연민의 감정을 느낀 글쓴이의 경험을 통해 관심과 연민의 중요성 및 타

인과 진정한 관계를 맺기 위해 필요한 태도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는 수필이다.

2. **갈래:** 경수필

3. **성격:** 신변잡기적, 서정적, 감성적

4. **특징**

- ① 어린 시절의 경험을 고백적 문제로 서술하고 있다.
 ② 대상에 대한 글쓴이의 심경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5. **제재:** 선물로 받은 강아지

6. **주제:** 강아지 선물을 통해 느낀 연민의 감정

>>정답 ②

▶출제 영역 분석

영역	분야	문항	출제 내용
규범 문법 6문항	음운론	3	표준 발음 음운의 변동 음운의 특징
	형태론	1	단어의 형성법
	문장론	2	문장의 짜임: 안긴 문장 주체 높임
어문 규정 2문항	한글맞춤법	2	구별하여 적어야 할 단어 띄어쓰기
현대 문학 3문항	현대 시	1	신경림 <파장>
	현대 소설	2	성석제 <선물>
고전 문학 3문항	가사	1	허전 <고궁가>
	고시조	1	송순 <십년을 경영하야~> 황진이 <동짓달 기나긴~>
	민요	1	작자 미상 <베를 노래>
비문학 5문항	독해	5	내용 일치 내용 전개 방식 내용 추론 설명 방식
한자 성어 1문항	한자 성어	1	주제 관련 성어: 안빈낙도

受驗生 여러분의合格을 眞心으로 祈願합니다.

-김정진 선생 제공-

